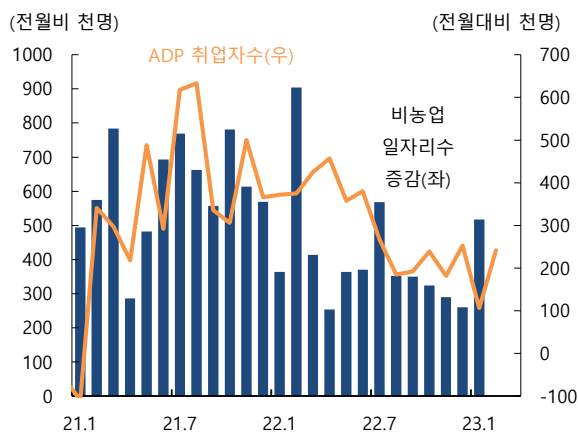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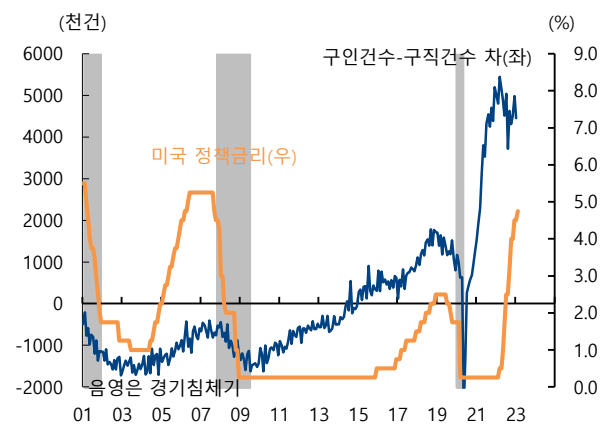
큰 흔들림 없는 미 고용

그림1.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민간 일자리수 증가폭



자료: Bloomberg, CEIC, 하이투자증권

그림2. 노동시장내 노동공급 부족 현상도 지속 중



■ 미 고용시장, '노동수요 > 노동공급' 현상 지속

- 2월 민간 일자리 수 증가, 시장예상치 상회

- 미국 고용시장이 여전히 탄탄한 흐름을 유지함. 2월 고용보고서 발표 직전에 발표되는 2월 ADP 민간기업 일자리 증가 폭은 24.2만건으로 시장 예상치 20만건을 상회하면서 지난 1월(10.6만건)보다 2배 이상 증가함
- 업종별로는 1월 비농업일자리수 서프라이즈를 주도했던 레저·접객업종에서 8.3천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서비스 부문이 고용호조를 주도 중임. 이 밖에 금융업과 제조업에서 각각 6.2만개와 4.3만개의 일자리가 증가함

- 노동공급 부족 현상도 지속됨

- 고용시장의 노동력 공급 부족 현상도 지속되고 있음도 재차 확인됨. 1월 구인·이직보고서(JOLTS)에 따르면 1월 기업들의 총 구인건수는 1,082만 건으로 지난해 12월에 비해 41만건이 감소했지만 1천만 건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함
- 더욱이 고용시장내 노동력 과부족 현상을 대변하는 '구인건수 - 구직건수 차' 역시 1월 445만건으로 22년 12월 498만건에 비해 소폭 감소했지만 노동시장내 노동력 공급 부족현상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. 동시에 단기간에 노동공급 부족 현상 해소도 힘들 것임을 시사해줌

- 서비스부문을 중심으로 노동공급 부족현상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음은 고용시장이 경기침체를 방어하는 긍정적 역할을 할 것임을 의미하는 동시에 미 연준의 가장 골치거리인 물가압력이 크게 해소되지 쉽지 않음도 시사함
- 실제로 ADP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을 옮기지 않은 민간 기업 근로자들의 2월 임금 상승률은 전년동월 7.2% 상승하면서 최근 12개월간 가장 낮은 상승폭을 기록했지만 여전히 높은 임금 상승률이 유지되고 있음은 재차 확인됨. 미 연준이 주목하는 서비스 물가압력이 크게 둔화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됨

■ 그래도 2월 고용보고서 뚜껑을 열어봐야 3월 빅스텝 여부가 결정

- 2월 비농업 일자리수 증가폭은 1월에 비해 둔화될 것으로 예상

- ADP 민간 일자리 수와 주간 실업수당청구건수 추이 등을 감안하면 미국 고용시장은 여전히 탄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2월 비농업일자리수가 또 다시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. 그러나, 고용지표의 변동성과 1월 다소는 큰 폭으로 증가했던 일자리 증가폭을 감안하면 2월 비농업일자리 수 증가 규모는 1월에 비해 크게 둔화될 공산이 높은 것도 사실임
- 2월 비농업일자리 수 등 고용보고서가 3월 FOMC 회의에서 빅스텝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변수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2월 고용보고서에 대한 시장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 큼
- 파월 의장도 하원 연설에서 "우리는 3월 회의에 대해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. 추가 자료를 볼 때까지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"라며 "그것은 지표에 달려있다"라고 밝히는 점을 고려할 때 2월 고용보고서 결과가 미 연준의 금리인상 행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함

Compliance notice

▶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-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
▶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 (작성자 : 박상현, 류진이)

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